

89.11.12

비디오 폭력영화 '잔혹성' 판쳐

건전비디오 모임 1편에 30회 살인장면도

청소년은 물론 성인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공포비디오영화 대부분이 무차별적인 살인행위를 주제로 하고 있어 생명경시 등 정신적인 폐해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왔다.

서울YMCA 건전비디오문화연구 시민의 모임(건비연)이 지난 달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은 공포비디오영화 10편을 선정, 모니터한 결과에 따르면 한 편당 평균 살인횟수가 9건에 달했고 '비운다' 같은 경우는 90분 상영시간 동안 30여회의 살인이 이루어지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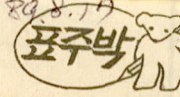
살인의 동기도 설득력이 없고 정황 역시 이유없이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난 경우가 많았다.

또한 정신이상자나 이상심리자, 악령이 켜었거나 죽었다 살아난 사람 등 대부분이 인간의 모습을 한 살인자가 등장해 인간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우려를 낳고 있다.

살인이나 공포장면에 선정성을 결합시켜 단순한 흥미거리로 보여지게 하는 등 죽음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불어넣을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됐다.

건전비디오 모임은 "이같은 영화를 막대한 외화를 들여 수입하는 비디오업체와 공룡의 심의 기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된다"고 말하고 "앞으로 핵, 공해, 기계문명 등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인 공포와 위협의 요소가 되고 있는 소재들을 채택해

야 할 것"이라고 지적했다.



표주박

89.8.17

소속영화를 선정하고 고개 조

로 불렀다. (16·무적)을 사기행위

결찰에 의하면 조준근은 지

난 15일 상영시간에 친구 4명

과 함께 금씨의 이발소에 들

어가 면도사와 퇴폐행위를

○...대정결찰

서는 16일 대전

시大德區大禾洞

35분화이발소주

인(金명진씨)(25

를 100여만원

위반행위를 단 구

소했다. (16·무적)을 사기행위

결찰 관제자는 5명이 퇴

폐행위를 한 뒤 돈이 없다고 한

청소년이나 청소년을 상대로

퇴폐행위를 시킨다는 특갈

다』고 한다. 【大田=韓

퇴폐이발소서 모금안낸 10대를 불구속